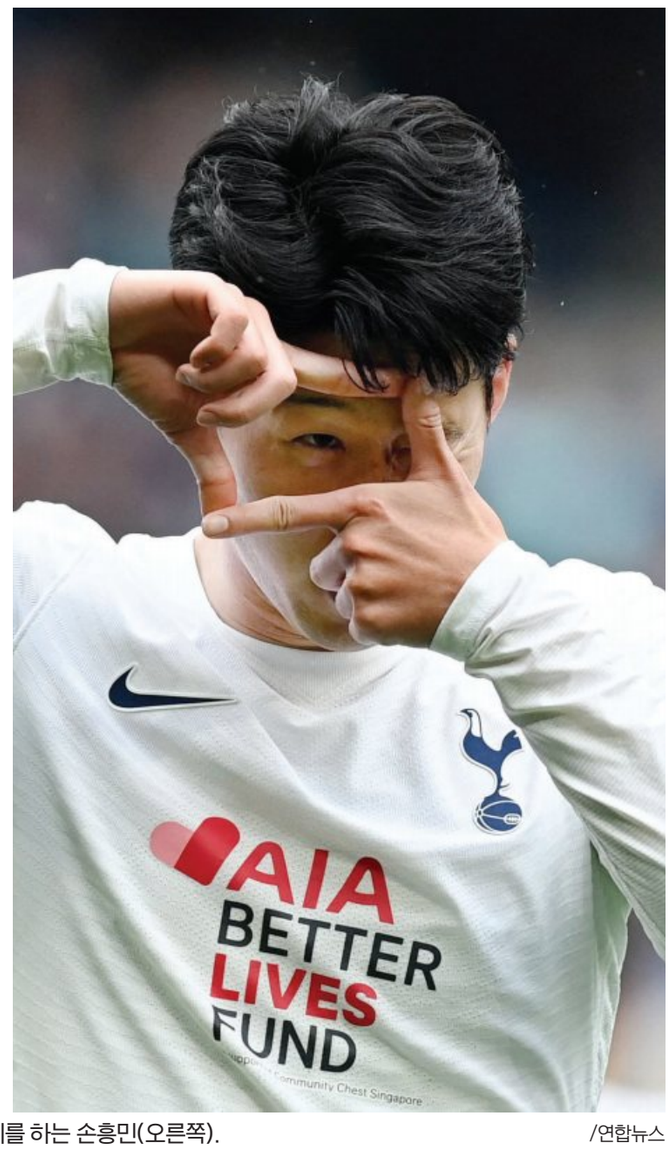
"아름답다. 손흥민 골"



1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4분 토트넘의 손흥민이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로 감아찬 공이 골대 상단에 꽂히고 있다(왼쪽). 골을 넣은 뒤 골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오른쪽). /연합뉴스

EPL 레스터 시티와 경기 2골 1도움 팀 3-1 승리 이끌어

시즌 19호 골로 차범근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 깨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멀티 골을 폭발하며 시즌 19호골을 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1일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21-2022 시즌 EPL 3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돕고 후반전 연속골을 뽑아 토트넘의 3-1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데얀 클루세브스키의 도움을 받아 2-0을 만드는 골을 넣었다. 클루세브스키가 오른쪽에서 내준 패스를 오른발로 한 번 트래핑한 뒤 왼발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후반 34분에는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골대 상단에 꽂아 토트넘이 3-0으로 앞서나가게 했다. 이번에도 클루세브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다.

이날 첫 득점으로 시즌 18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자신과 36년 전 차 전 감독이 세운 한국 축구 선수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17골 기록을 깼다.

차 전 감독은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 소속으로 대기록을 쓴 바 있다.

지난달 10일 32라운드 애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이후 3주, 3경기 만에 기다렸던 득점포를 가동하며 한국 축구사를 새로 썼다. 여기에 두 번째 골로 시즌 득점을 19골까지 늘렸다.

이날 경기 전까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7골·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EPL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있던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로 단독 2위로 뛰어올랐다. 득점 선두 무함마드 살라흐(22골·리버풀)와 격차는 3골로 줄어들었다.

손흥민은 전반 22분에는 오른쪽에서 찬 코너킥으로 케인의 헤더 선제골을 도왔다. EPL 통산 최다 합작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단짝' 손흥민과 케인은 이 기록을 41골로 늘렸다.

도움에 멀티골까지 올린 손흥민은 EPL 공격포인트를 19골 7도움으로 늘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올린 1골 1도움을 더하면 올 시즌 공식전 20골 8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팀이 3-0으로 앞선 후반 37분 스테번 베르흐베인과 교체됐다.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면서 콘테 감독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행 소문으로 시작된 토트넘 선수단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정상화할 전망이다.

UECL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토트넘은 주중 AS로마(이탈리아)와 UECL 준결승 1차전(1-1 무승부)을 치러 체력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한 레스터 시티를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역습으로 대응한 레스터 시티도 전반 14분 골대를 맞추는 등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은 세트피스로 활로를 찾았다. '손케 듀오'가 선제골을 책임졌다. 여기에 손흥민이 후반전 멀티 골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추는 토트넘 쪽으로 확 기울었다.

레스터 시티는 후반 46분 켈레치 이헤아나초가 송곳 같은 중거리 슛으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KIA, 키움과 홈 3연전 뒤 한화와 원정 경기

타이거즈 전망대

시행착오를 겪은 '호랑이 군단'이 발톱을 다시 세운다.

5연패의 늪에 빠진 KIA 타이거즈가 5월 반전의 무대를 만든다. KIA는 지난 주말 삼성과의 홈 3연전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하는 등 5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KT와 삼성을 상대했던 지난주 선발진은 모두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상) 이상의 활약을 해줬지만, 결과는 1승 5패였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집중력 부재의 타격은 여전했고, 타선의 답답한 흐름 속 부담 많은 필승조까지 동시에 무너졌다.

선발진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로니 윌리엄스가 임파선염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날짜를 앞당겨 복귀전에 나선 임기영이 6이닝 3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해줬다.

선발진의 활약에도 야수진들이 공·수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선발진까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타선의 반전이 절실하다.

KIA는 이번 주 안방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른 뒤 대전으로 가서 한화를 만난다. 첫 만남에서는 KIA가 각각 위닝시리즈와 스윕승으로 웃었다.

충격의 한 주를 보낸 KIA는 부상에서 회복한 박찬호로 공격의 활로를 찾는다. 박찬호는 지난 22일 허벅지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또 지난 시즌 '깜짝 화력'을 선보였던 좌타자 이정훈도 공격의 새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퓨처스 리그에서 올 시즌을 시작한 이정훈은 11경기 나와 28타수 11안타, 타율 0.393로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타선의 '구슬 꿰기'가 중요하다.

KIA의 객관적인 타격 지표는 나쁘지 않다.

팀 타율은 0.260으로 뜨거운 봄날을 보내고 있는 롯데(0.266)에 이어 2위다.

99개의 타점을 만들면서 타점 부문에서는 SSG(109점), 삼성(102점)에 이어 3위. 득점권 타율도 0.255로 역시 SSG(0.272), 삼성(0.260)의 뒤를 잇고 있다.

출루율은 0.340으로 가장 높고, 장타율도 0.368로 롯데(0.376)에 이어 2위다.

하지만 보이는 수치와 다르게 결과는 좋지 못하다. 답답한 침묵 뒤 3차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공격의 순도가 높지 못했다.

'뛰는 야구'로 상대의 빈틈을 노려 득점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루는 7개로 최하위, 오히려 느슨한 수비로 상대의 추가 진루를 허용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다.

초보 사령탑의 마음과는 다른 결과들의 연속이었다.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 수싸움에서도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앞선 패배가 '쓴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팀 전력을 점검하고, 구슬을 잘 꿰어야 한다.

무엇보다 베테랑이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주장' 김선빈이 공·수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 반전에 앞장서야 한다.

'기록행진'을 앞둔 최형우의 활약도 필요하다.

최형우는 KBO리그 통산 2번째 1400타점(-2), 4번째 3600루타(-12), 10번째 2100안타(-9)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형우가 개인 기록 달성과 함께 팀 승리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018년 양궁대표팀이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신궁' 안산·김제덕 4일 챔필서 아시안게임 대비 특별훈련

'신궁' 안산(광주여대)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아시안게임 정상을 향한 특별훈련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양궁 국가대표팀의 특별 훈련을 지원한다.

이번 훈련은 양궁 대표팀이 경기장 소음 등을 경험하면서 관중 중압감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궁 남녀 대표팀(리커브, 컴파운드)은 단체전을 치르며 훈련을 진행한다.

오후 5시 30분 컴파운드 대표팀의 남자팀과 여자팀 간 단체전이 펼쳐지고, 오후 5시 55분부터 리커브 남녀 대표팀이 맞대결에 나선다.

경기는 아시안게임 단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4엔드 동안 70m(컴파운드 50m) 떨어진 과녁에 팀별로 1인 1발씩 3발을 교대로 쏜다.

메달리스트의 맞대결도 펼쳐진다.

'세계 최강'의 리커브 여자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 비롯해 강채영(현대모비스), 리우올림픽 여자단체전 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과 평가전에서 1위를 기록한 이가현(대전시체육회)으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는 남자 대표팀은 도쿄에서 안산과 올림픽 첫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김제덕(경북일고)과 남자단체전 금메달 멤버인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청주시청)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인전 은메달리스트인 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됐다.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에서는 김종호·최용희(이상 현대제철), 양재원(울산남구청), 강동현(대구시양궁협회)이 나서고, 여자 대표팀은 소채원·송윤수·김윤희(이상 현대모비스), 오유현(전북도청)이 사선에 선다.

KIA는 이번 훈련 지원을 통해 양궁 국가대표팀의 2022 항정우 아시안게임의 선전을 기원하고,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이정효 '4월의 감독상'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사진〉이 4월 5경기에서 무패행진을 이끌며 '이달의 감독'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이정효 감독을 4월 '파라다이스시티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정효 감독은 4월 진행된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행진을 지휘하면서 광주를 1위 자리에 올려놨다.

광주는 4월 첫 경기였던 8라운드 경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고, 이어 9라운드 부산전과 10라운드 전남전에서 각각 1-0 승리를 기록하며 3연승에 성공했다.

광주는 11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1·2위 팀 간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12라운드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장식했다.

이 승리로 4월을 무패행진으로 마감한 광주는 부천을 끌어내리고 1위 탈환에도 성공했다.

특히 광주는 4월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5경기 3실점의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광주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 13점을 쓸어담으면서 K리그2 우승 경쟁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광주의 뜨거운 4월을 이끈 이정효 감독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공격 축구로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라며 더 높은 목표를 말했다.

한편 '4월의 감독'이 된 이정효 감독에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기념 트로피와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디럭스 스위트 숙박권이 제공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